



‘다름’ ‘평화’에 대하여... ‘오월 정신’ 뉴욕 광장에 서다

지역 예술가 모임 ‘집 아트 프로젝트’ 미국서 ‘광주 아리랑’ 예술제

맨하튼 타임스퀘어 광장, 9·11 메모리얼 뮤지엄 등서 2주간

광주의 민주정신인 ‘오월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왔다. 7월 끝자락부터 2주간 맨하튼 타임스퀘어 광장과 유니언스퀘어, 9·11 메모리얼 뮤지엄과 K&P 갤러리에서 ‘광주 아리랑-광장프로젝트’ 예술제를 펼친다.

행사에 참여하는 ‘집 아트 프로젝트’는 권경애·국근섭·김창호·노정숙·서진선·송지나·은혜인·이선영·주라영·주홍 등 지역을 거점으로 음악, 미술, 문학, 무용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이다. 이번 기획에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을 포함해 미리 약속된 다른 지역 작가들까지 모두 열여덟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로 평양 광장 공연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아 모두가 무척이나 설렜다. 뉴욕 현지에서 어떤 작품들이 완성되고 광주의 정신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세계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도 되고 많이 흥분된 상태다.

그 첫 공연이 지난달 31일 오후 5시(현

지 시각)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렸다. 우리가 서 있는 맨하튼 타임스퀘어 광장을 비롯해 주위를 꼭 둘러봤다. 우리는 긴장감을 안고 맨하튼의 중심가인 타임스퀘어 미드타운 42번가에서 49번가 사이에 7번 애비뉴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뉴욕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주변 건물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 화려한 광고 영상이 24시간 비추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광고도 즐비하다. 이러한 타임스퀘어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뉴욕 여행객들이 필수로 들리는 포토 존이 보였고 미국관련 뉴스가 나올 때, 특파원들의 단골로 나오는 장소도 보였다. 이곳 배경들로 만들어진 몇 편의 영화들도 생각났다. 드디어 이 화려한 도시에서 우리는 ‘오월 아리랑’을 펼쳤다.

이번 프로젝트의 장소를 타임스퀘어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민주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광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광장의 창조적 과정 속에, 시

민이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바로 완성시키는 ‘걸개그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장의 작품들은 광주 민주광장에서 출발하여 뉴욕의 여러 광장으로 연결된다. 특히 타임스퀘어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더 다양한 색깔을 가진다.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으로 채워진 이 광장의 작품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과정과 결과의 이야기이며, 공통된 메시지는 ‘평화’다.

광장에 모인 기자들이 몰렸다.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그토록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지난 80년 5월은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그때 광주에서 로컬아트, 설치아트인 ‘걸개그림’이 민주항쟁의 도구가 되었다. 이 걸개그림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화가들이 길에서 빠르고 순발력 있게 그림으로 순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였다. 이후에 촛불광장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광장예술, 광장 정신은 세계로 나아가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의 메시지의 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인 ‘집 아트프로젝트’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광장에서 걸개그림 그리기, ‘님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주 아리랑-광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집 아트프로젝트 제공>

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설명을 했고, 플래시몹 ‘님을 위한 행진곡’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한창 동안 이뤄졌다.

그동안 서로 뜻을 함께한 작가들은 많았지만 각자 제자리를 찾았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달지 못하는 곳이 없다. 화려하지만

소박한 공간에서부터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 움직임은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을 예술로 형상화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여러 색깔이 소통되는 도시, ‘뉴

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 맨하튼 밤의 거리에 또 다른 낮달이 뜨고 있다.

우리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의 광장을 통해 실험적인 창조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뉴욕·한경숙 집아트 프로젝트 프로그램 매니저

ACC 방문연구자 강연회

내일 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국내외 아시아 문화 전문가로 선정된 방문연구자의 강연회를 8월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 대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문화 연구 및 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강연은 ‘ACC·R Fellow 2018’에 참가한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 지역의 정치, 종교, 도시, 예술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선보인다.

8일 강연에서는 이크라 아누그라(인도네시아 경제사회교육연구소 연구원)가 지방 도시의 사례를 들어 동시대 인도네시아의 운동 문화가 일상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노엘 모라틸라(필리핀대학교 아시아센터 교수)는 가톨릭에서의 금욕기간인 사순절을 페미니스트 철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object)’의 이론을 빌려와 해석하며, 필리핀의 종교 문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료 강의. /김미은 기자 mekim@

REPLAY

화순 다산미술관, 박연숙·성현지·조민서 ‘업사이클 아트’전

폐교에서 주워온 낡은 나무의자, 컴퓨터 부품이 예술작품이 됐다. 관람객은 다양한 작품을 만지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색다른 즐거움을 느낀다.

화순 다산미술관은 업사이클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REPLAY·박연숙, 성현지, 조민서’ 3인전을 30일까지 개최한다. 업사이클 아트는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가치를 입혀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초청된 작가들은 화순 경북미술문화원과 다산미술관이 공간연계형 창작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들로 업사이클아트를 기반으로 한 시작과 청각을 아우르는 설치미술전을 선보인다.

박연숙 작가는 전기 회로와 같은 연결 상태를 빌려 광주를 누비는 자신의 활동 지도를 참신하게 표현했다. 작가는 자신이 활동하는 9개의 거점지를 오래 된 컴퓨터의 폐부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고 여기에 각각의 감정을 전달하는 소리를 담았다.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프리카 조각상의 아몬드형 눈매를 가진 여인에 자신을 투영한 작품을 선보인 조민서 작가는 지금은 폐교가 된 학교 교실의 버려진 창과 의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왔으며 성현지 작가는 꿈과 현실의 세계를 오가는 모습을 기발한 방식으로 표현한 ‘투어리스트’를 선보인다. 문의 061-371-3443. /김미은 기자 mekim@



성현지 작 ‘투어리스트’

작가 77인의 이웃사랑

진한미술관 31일까지 ‘사랑과 나눔전’ 구만채 작가 등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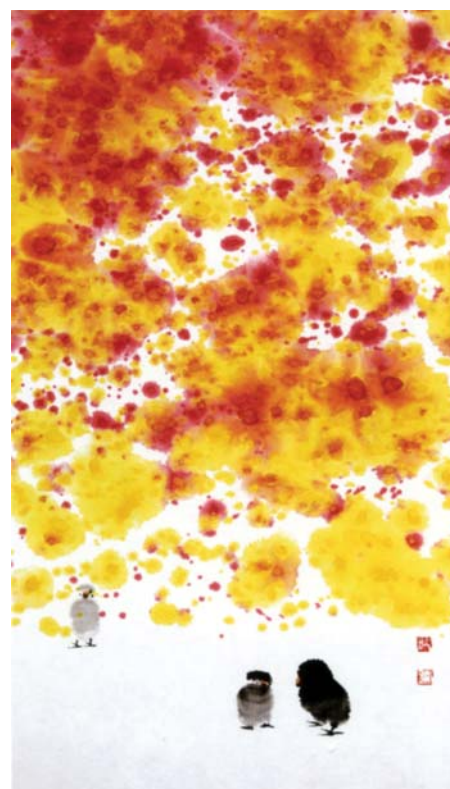
진한미술관(관장 김상덕)이 주최하는 작가와 이웃돕기 ‘사랑과 나눔전’이 7일부터 31일까지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진한미술관(광주시 동구 중앙로)에서 열린다.

올초에도 나눔전을 개최, 사랑을 나눴던 진한미술관은 이번엔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대, 전시회를 꾸몄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창작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다.

전시에서는 수채화, 서양화, 한국화, 조각, 문인화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매화, 장미, 모란, 해바라기 등 화사한 꽃그림은 행복감을 전해주며 보성강변 가을 모습,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풍광, 화순 세랑리 저수지의 아침 등 국내외 아름다운 풍경을 다룬 작품들이 전시됐다. 또 유쾌한 이야기를 다룬 다채로운 조각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고현주·구만채·김영화·노은희·박상호·박태후·신동원·정선·정선복·정춘표·조성호·주미희·하철경·작가 등 모두 77명의 작가가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222-0072. /김미은 기자 mekim@

◀박태후 작 ‘자연 속으로’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